

“지방 이전 공공기관 예산 지역은행 예치 법제화 하자”

한국경영학회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 지역은행 수신액 비중 1%P 늘어나면 지역내총생산 0.45%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거래 비중 더 늘려야

빛가람혁신도시 등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예산 일정 부분 이상을 광주은행 등 각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은행의 상생, 나아가 지역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정부의 지역소멸기금 역시 해당 지역의 지역은행에 게 맡겨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으로, 광주은행과 부산·경남·iM뱅크·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역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경영학회는 지역은행의 수신액 비중 등 지역은행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경영학회가 분석한 결과 전체 수신액 중 지역은행의 수신액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면, 해당 지역은행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지역

내총생산(GRDP)이 0.4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지역의 사업체 수는 0.39%, 근로자 수 0.26%, 중소기업 대출액도 1.0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신진교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대구경북지회장)는 발표를 통해 “지역은행은 수신 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거래를 기존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의 예산 일부는 지역은행에 예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신 분포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수도권 비중이 66.9%, 지방 비중은 33.1%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국전

력공사(한전)를 비롯해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상황이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별로 주거래 은행이 있는 기관도 있고, 지역은행이 아닌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전은 주거래 은행은 따로 없으며, 사업 시행 당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수시로 선택해 이용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올 한해 유지관리직급 명목으로 연간 정기예금 400억원, 운영자금 단기 예치 2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광주은행과 거래했지만, 주거래 은행인 농협과 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상생 방안으로, 지역 이전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은행을 통해 이용할 것을 법제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지역은행 거래실적’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이 공동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개발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공헌 활동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지역소멸기금을 지역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타 지역 대비 큰 규모의 산업 부재, 자영업 등 일부 업종의 편중 문제 등이 극심한 만큼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지역민들이 더 긴밀한 밀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 6개 은행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과 지역금융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며 “지역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국세청, 현장 소통 늘리며 지역 경제 살리기 총력

지역 상의 간담회 세정 지원 모색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 내 기업·기관·단체 등과 소통을 늘리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여수석유화학업계의 부진 등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난관이 봉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장에서 직접 이들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선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한 광주세무사회 임원진(9명)과 소통 간담회

를 가졌다. 박광중 청장은 간담회에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및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달 29일부터 12일까지는 광주·광주·군산·여수상공회의소를 잇따라 찾아 지역 상공인 대표들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박 청장은 지역 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역 상공회의소·경제 단체와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세금 납기 연장 등 지원을 적

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청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려가며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와 결속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인사관리, 청사관리, 업무량 감축, 악성민원 대응, 납세자 만족도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8일에는 창의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통해 업무 개선 추진 및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광주청 으뜸인 포상,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신규 직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논의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연구센터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과제인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이유림 박사과 코스메슈티컬 및 바이오소재 분야 전문 기업인 ㈜바이오에프디엔씨 정대현 대표가 각각 ‘바이오 혁신 트렌드: 이슈와 과제’, ‘기후 온난화가 유발하는 피부 트러블과 융복합 신소재 개발’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소재 및 융복합의료산업의 최신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

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산학협력단과 바이오 유관기관, 수혜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유강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센터장은 “생물약연연구센터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의약품 및 의료소재 개발을 위한 장비 확충과 기술지도, 공정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융복합 의료산업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전남도, 광주시, 충남도 등이 초광역으로 연계 협력해 융복합의료제품의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초광역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소재·공정 개발, 제품·공정 시뮬레이션, 제품 고급화 및 3차원(3D) 스캔, 시험·평가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T, K-푸드 미국 수입 바이어 50명 초청 뉴저지서 수출 지원 세미나

트럼프 2기 식품 규제 등 주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미국 현지 기준) 뉴저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aT 현지화지원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행정부 2기에 대응해 ‘2025 K-푸드 수입 관련 식품규제 갱신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K-푸드’ 수입 바이어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세미나는 ▲2025년 변화하는 식품 안전과 규제 동향 ▲미국 주별 라벨링 표기 규정 ▲FDA 식품 규정 최신 쟁점과 분쟁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국에서 aT 현지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들의 사례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미국 시장에서는 미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도입 초기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의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취득 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aT는 이같은 국내·외 수출업체에서 현지화지원 사업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사업을 정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엽 aT 수출식품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농식품 수입 분야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문재웅 기아 광주공장장 광주상공대상 수상

문재웅(사진) 기아 광주공장장이 제 12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광주상의는 17일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로 경영우수부문 이영웅 ㈜리젠시빌주택 회장, 고용우수부문 문재웅 기아(주) 오트랜드광주 공장장, 기술혁신부문 유구현 (주)한국쓰리텍 대표이사, 지역공헌부문 박준희 씨제이제일제당(주) 호남지사장, 노사상생부문 양우현 오비맥주(주) 광주공장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웅 오트랜드 광주공장장은 33년간 기아에 재직하면서 전략적 생산혁신 및 생산기획으로 2013년 5800여명이던 광주공장 근무 인력을 7000여명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영우수부문 수상자 이영웅 회장은 2022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배, 영업이익은 약 2.7배 증가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공을 높게 평가

받았다. 기술혁신부문 유구현 대표이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가변축 업계 최초로 ‘가변가변축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지역공헌부문 박준희 씨제이제일제당(주) 호남지사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양우현 광주공장장(노사상생부문)은 3년 연속 무분규사업장 달성 등 노사 상생 문화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과 장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은 오는 20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TP·광주TP·순천대

공동 수출페스티벌 성료

1억2600만 달러 계약·MOU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가 15일까지 3일간 여수 소노호텔에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은)와 함께 공동으로 ‘제3회 전남·광주TP·국립순천대 해외비즈니스센터 수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해외비즈니스센터장, 광주·전남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수출계약 체결식, 1:1 수출상담회, 기술투자상담회, 참여기업제품 쇼케이스 등의 세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수출상담회에



서는 전남기업 7개사가 7300만 달러, 광주기업 9개사가 5300만 달러 등 모두 1억2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및 MOU를 체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로 일상 혁신하다... ‘GICON WEEK’ 행사

22일까지 전시·체험·성과공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오는 22일까지 ‘2024 GICON WEEK’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GICON, AI로 광주의 일상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AI로 창작하다(19일) ▲AI로 혁신하다(20일) ▲AI로 경험하다(21일) ▲AI로 체험하다(22일) 등의 컨셉으로 콘텐츠 및 디지털(ICT-SW) 산업 분야의 컨퍼런스, 전시 및 체험,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GCC사관학교 수료식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성과공유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성과공유회 ▲아시아전문화플랫폼 성과공유회 ▲지역 디지털 혁신 세미나 ▲지역 디지털품질관리 워크숍 ▲아시아실감기술콘텐츠 R&D 성과공유회 ▲광주메타버스지원센터 결과전시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들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우리 지역의 일상에서 각종 기술, 콘텐츠 등이 체험될 수 있도록 AI주제강연 및 세미나, AI융합 미디어아트공연, AI포토부스 체험, 스탬프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진행되는 컨퍼런스에는 ‘디스트리

트’, ‘CJENM’, ‘유튜버 1분과학’, ‘카이스트대학교’ 등 콘텐츠 및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GICON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 등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2024 GICON WEEK는 광주가 시민과 함께 문화 콘텐츠와 ICT 융합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라며 “지역 기업과 창작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9.07 (+52.21)
▲ 코스닥	689.55 (+4.13)
↓ 금리(국고채 3년)	2.915 (-0.026)
↓ 환율(USD)	1398.35 (-0.45)

광주은행, 퇴직연금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

광주은행은 18일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응모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를 유지 중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760명에게 커피 쿠폰, 배달의민족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입금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개인형 IRP 신규 부문은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하고, 5만원 이상 입금액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 커피스벅이 쿠폰 1만 원권을 제공한다. 추가입금 부문에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형 IRP에 추가입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00명에게 배달의민족 상품권 1만 원권을, 500만원 이상은 50명에게 배달의민족 상품권 2만 원권을, 900만원 이상인 경우 30명에게 배달의민족 상품권 3만 원권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는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개인형 IRP를 광주은행 IRP로 계좌 이체 시 금액 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이면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 5000만원 이상은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전원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